

중도일보

1951년 창간

中 都 日 報

joongdo.co.kr

COI란?	COI는 IETF(국제기구)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. 자세한 내용보기				
COI	G700:RA106+01400351-01400351:20091109:01400351.2009110910002808655:1		제호	13319	
RA기관	언론재단	서비스명	뉴스인증 서비스	면번호	21

[사설]대전문화재단 출범에 바란다

[대전=중도일보] 몇 년 전부터 지역문화계가 설립을 기대해 왔던 민주도 문화재단이 드디어 출범했다. 대전문화재단은 6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식적인 개원식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에 나섰다.

관 주도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이 갖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추출해 이를 추진함으로써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. 이런 관점에서 대전지역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바라왔고 대전시가 기금을 출연해 재단설립에 이르게 됐다. 일각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재단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집약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제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및 사무국 구성을 모두 끝내고 출범식까지 끝낸 만큼 대전문화재단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.

대전문화재단은 무엇보다 대전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연구하고 이를 폭넓게 담아내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. 그동안 관에서 해오던 문화정책에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졌던 것은 전문성과 일관성, 창의성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미숙함이라고 할 수 있다. 이제 민간인들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틀이 마련된 만큼 재단은 본격적인 문화정책을 양산해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에 직면해 있다. 대전을 어떻게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. 재단은 여기에 많은 고민과 지역문화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.

다음으로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계와 끊임없이 교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소 구실을 해야 할 것이다. 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등 당면한 많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.

이와 함께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은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원활한 협의를 이루어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. 이런 일이 제대로 돼야만 지역의 문화적 흐름을 제대로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. 이는 비단 재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. 재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문화예술계 또한 원활한 거버넌스 구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.